

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43-1호)

#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사교육 이용 실태 및 AI 학습도구 활용 방안

2025. 8. 13.

담당자 정집훈 책임연구원

전화 | 02-3014-1067

e-mail | jh.jeong@hrc.co.kr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 연구진

##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 저작권 정책

---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러두기

---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사교육 이용 실태 및 AI 학습도구 활용 방안

### 주요 결과

1

- 통계청의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023년 27조 1천억 원에서 2024년 29조 2천억 원으로 7.7%포인트 증가했고, 참여율은 78.5%에서 80.0%로 1.5%포인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4만 원에서 47.4만 원으로 9.3%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왔으나, 최근 주목받는 AI 학습도구를 포함한 사교육 실태 파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2025년 4월 21일 ~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33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전통적 사교육 이용 실태를 진단하고, AI 학습도구가 사교육을 부분 대체·보완할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미취학 및 초중고 자녀가 있는 응답자(560명)의 90% 이상은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중 79%는 학원, 36%는 온라인 강의(인강)을 듣고 있다.
- 전체 응답자(1,335명)의 74%가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87%는 사교육 유무가 학생 간의 학습 격차를 발생 시킨다고 인식하였다.
- 미래 사교육 시장에서 AI 학습도구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87%를 차지하였으며, 관심이 있는 사람도 61%로 나타났다.
- AI 학습도구는 최신 학습자료 제공, 시간·비용·접근성·효율성 면에서, 학원강사는 심리적인 지원,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 등의 정서적인 부분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된다.
- 10년 뒤 학생들이 특정 과목을 수강할 때,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과목에서는 AI 학습도구, '국어·논술, 운동, 예체능' 관련 과목에서는 학원강사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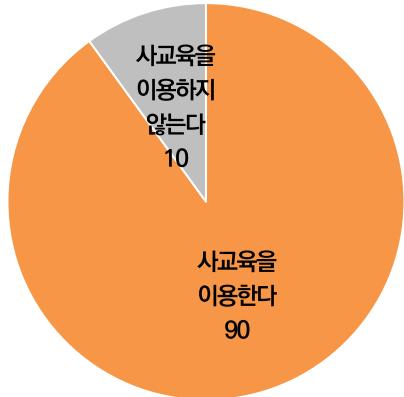
# 1 사교육 이용 실태

## 미취학 및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90%가 사교육 이용

본 조사에서 미취학 및 초중고 자녀가 있는 응답자 560명 중 504명(90%)이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다. 그중 79%는 학원, 36%는 온라인 강의(인강)를 듣는다.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수학, 영어 등 학교 수업에서 부족한 특정 과목 보충(44%)', '학교 성적·내신 관리(41%)', '학습 습관 형성(37%)' 등의 순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90%가 사교육 이용하고 있어  
자녀가 받고 있는 주된 사교육 형태는 '학원'과 '온라인 강의(인강)'

(단위: %)



자녀가 받고 있는 사교육



질문: 현재 본인의 자녀가 받고 있는 사교육 형태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비고: 학원, 온라인 강의(인강), AI학습도구, 과외, 기타 중 하나라도 이용한다고 답한 사람을 '사교육 이용자'로 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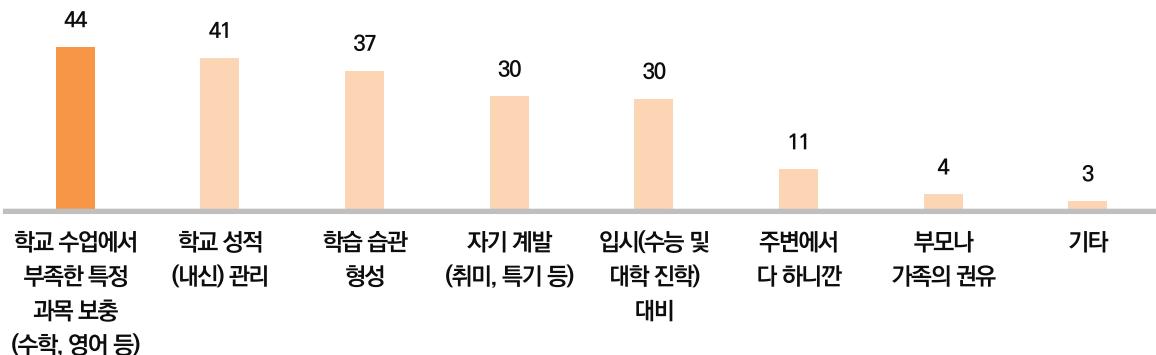
응답자 수: 미취학 및 초중고 자녀가 있는 560명

조사기간: 2025. 4. 21.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사교육을 받는 주된 이유로는 ‘학교 수업에서 부족한 특정 과목 보충’, ‘학교 성적 관리’ 등

(단위: %)



질문: 사교육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비고: 복수응답, 1+2순위 응답값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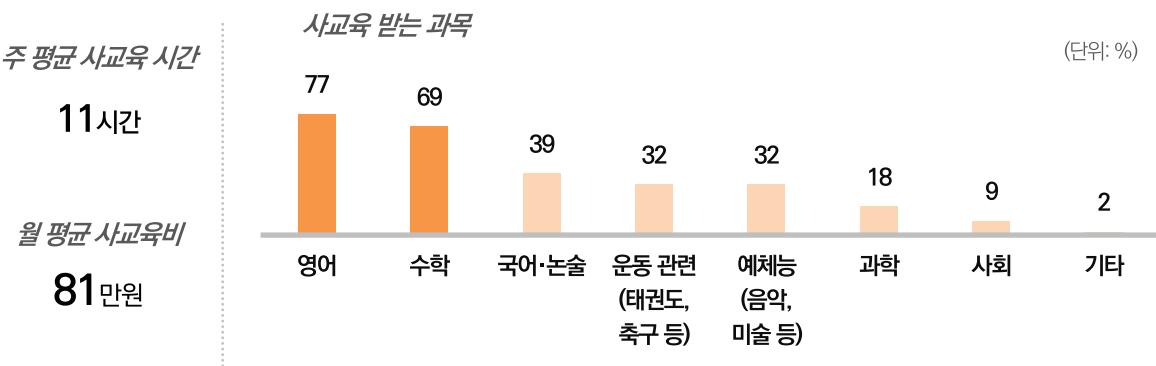
응답자 수: 사교육을 받는 미성년 자녀를 둔 응답자 504명

조사기간: 2025. 4. 21.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사교육을 받는 가구 기준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은 11시간,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81만 원이며, 이용 과목은 영어(77%), 수학(69%), 국어·논술(39%) 순이다. 서두에 언급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는 사교육을 받지 않는 초·중·고교 학생까지 모두 포함한 평균 금액인 반면, 본 조사에서의 사교육 시간 및 사교육비는 사교육을 받는 가구의 결과라는 점에서, 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교육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강사의 전문성 및 강의력’(47%)과 ‘학원·과외의 접근성’(45%)을 꼽는다.

### 사교육을 받는 가구 기준 주당 평균 사교육 시간은 11시간,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81만 원 이용 과목은 영어(77%), 수학(69%), 국어·논술(39%) 순



질문: 사교육 시간: 귀하의 자녀는 일주일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사교육을 받으시나요?

사교육비: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교육 받는 과목: 주로 어떤 과목(또는 영역)에서 사교육을 받고 있나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비고: ‘사교육 받는 과목’ 질문은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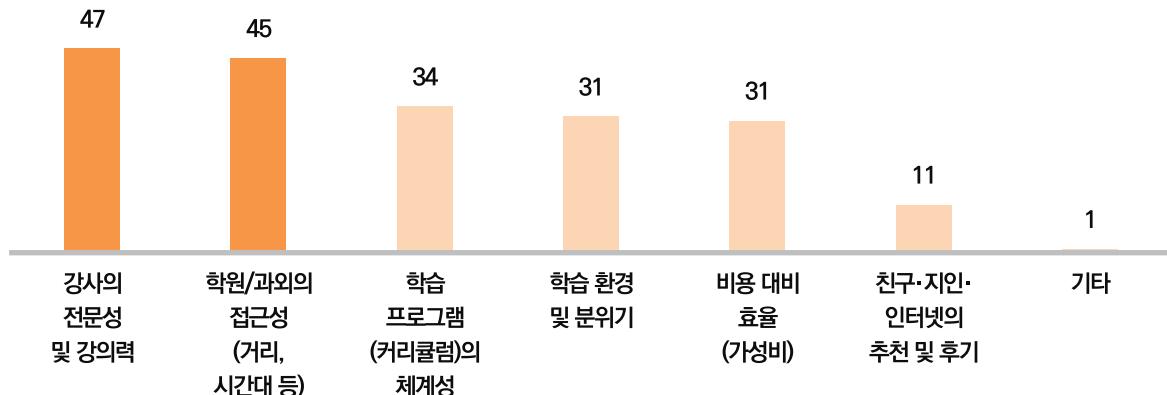
응답자 수: 사교육을 받는 미성년 자녀를 둔 응답자 504명

조사기간: 2025. 4. 21.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사교육 이용시 중요요소는 '강사의 전문성 및 강의력' 및 '학원/과외의 접근성'

(단위: %)



질문: 사교육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비고: 복수응답, 1+2순위 응답값 제시

응답자 수: 사교육을 받는 미성년 자녀를 둔 응답자 504명

조사기간: 2025. 4. 21.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우리나라 사교육의 필요성과 영향

전체 응답자(1,335명)의 74%가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30대와 40대는 각각 85%, 90%로 가장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80%)과 인천·경기(78%)에서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 교육열이 높은 연령대와 지역에서 사교육 필요성을 더욱 크게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전체 응답자의 74%, 대학 진학 위해 사교육 필요하다고 답해

(단위: %)



질문: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335명

조사기간: 2025. 4. 21.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교육열이 높은 연령대(30대, 40대)와 지역(서울, 인천/경기)에서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크게 체감

(단위: %)

사례수(명)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①+② 필요하지 않다	③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③+④ 필요하다
전체	(1,335)	6	20	26	58	16	74
<b>연령</b>							
18~29세	(203)	9	15	24	57	19	76
30대	(199)	2	13	15	64	21	85
40대	(229)	2	8	10	64	26	90
50대	(260)	5	16	21	63	16	79
60대	(238)	7	30	37	52	11	63
70세 이상	(206)	11	36	47	48	5	53
<b>지역</b>							
서울	(250)	5	15	20	54	25	80
인천/경기	(429)	4	17	22	63	16	78
대전/세종/충청	(144)	8	22	29	56	14	71
광주/전라	(129)	6	23	29	59	12	71
대구/경북	(128)	3	23	26	57	17	74
부산/울산/경남	(197)	11	21	32	58	11	68
강원/제주	(58)	3	34	37	47	15	63

질문: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335명

조사기간: 2025. 4. 21.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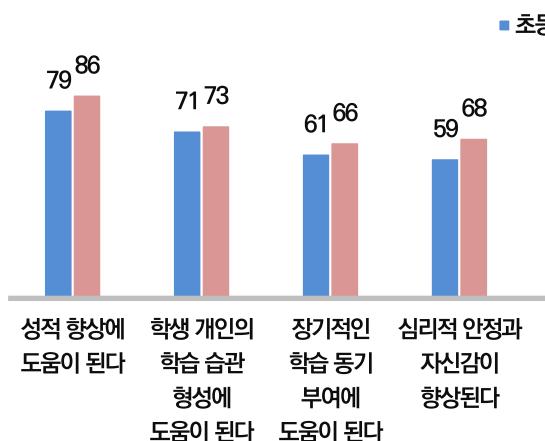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또한 '사교육을 받으면 초등학생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79%)', '사교육을 받으면 초등학생 개인의 학습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71%)',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초등학교 학습 경쟁에서 불리할 것이다(70%)' 등 사교육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데 다수가 동의한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초등학교 학생과 유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사교육이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학령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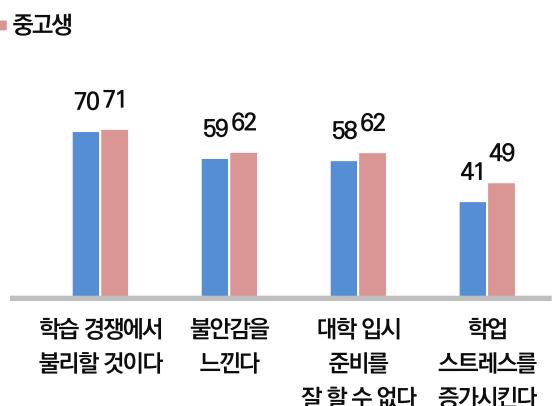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87%는 사교육 유무가 학생 간의 학습 격차를 발생시킨다고 인식하며, 특히 학령기 자녀가 있는 사람(91%)이 학령기 자녀 없는 응답자(84%)에 비해 사교육 유무에 따른 학습 격차 발생을 더 많이 인정한다.

## 사교육이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중고 전 학령에서 유사한 인식

사교육을 받으면...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질문: 사교육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비고: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 응답

응답자 수: 1,335명

조사기간: 2025. 4. 21.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전체 응답자의 87%가 사교육 유무에 따른 학습 격차 있다고 인식하며,  
특히 학령기 자녀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인정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모르겠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사례수(명)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③+④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전체 (1,335)	30	57	87	9	1	11	2
학령기 자녀 있음 (560)	35	56	91	5	2	7	1
학령기 자녀 없음 (775)	27	57	84	12	1	13	3

질문: 사교육을 받는 학생과 받지 않는 학생 간의 학습격차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전체 응답자 1,335명

조사기간: 2025. 4. 21.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2 사교육비 지출 부담 및 대책

### 사교육비 가계 경제 부담 정도, 90%가 '부담 된다' 향후 사교육비 지출 정도, 절반 이상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

전체 응답자가 생각하는 월평균 가구소득 대비 적정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평균 19%이다. 학령기 자녀가 있는 사람(19%)과 없는 사람(18%) 간 차이가 없다. 또한, 응답자들은 사교육비 지불 의향과 무관하게 사교육비를 부담스러워한다. 미취학 및 초중고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90%가 현재 지출하는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며, 향후 사교육비 지출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다'라는 응답도 절반을 넘는다. 전체 응답자로 넓혀 봐도 사교육비 지출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며 특히 젊은 층일수록 그러한 의견이 높아, 미래에 사교육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 미성년 자녀 있는 응답자의 90%가 사교육비 지출 부담 느끼고 있어

(단위: %)

■ 매우 부담된다 ■ 부담된다 ■ 잘 모르겠다 ■ 부담되지 않는다 ■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39

51

1

8

1

질문: 현재 지출 여부와 무관하게, 가정에서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면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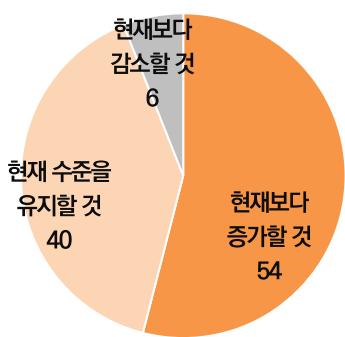
응답자 수: 미취학 및 초중고 자녀가 있는 560명

조사기간: 2025. 4. 21.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hrcopinion.co.kr)

#### 미성년 자녀 있는 응답자, 향후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다' 우세

#### 미성년 자녀 있는 응답자



#### 모든 연령대에서, 특히 젊은 층일수록 사교육비 지출 정도 '현재보다 증가할 것' 높아

#### 전체 응답자

(단위: %)

	사례수 (명)	현재보다 감소할 다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	현재 보다 증가할 것
전체	(1,335)	10	38	52
연령				
18~29세	(203)	8	26	65
30대	(199)	5	36	59
40대	(229)	4	42	53
50대	(260)	8	44	48
60대	(238)	14	42	44
70세 이상	(206)	17	36	46

질문: 향후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정도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응답자 수: 미취학 및 초중고 자녀가 있는 560명, 전체 응답자 1,335명

조사기간: 2025. 4. 21.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hrcopinion.co.kr)

### 3 AI 학습도구 및 온라인 학습

#### AI 학습도구 관심도, 61%가 ‘관심이 있다’ 향후 AI 학습도구의 영향력 ‘영향 있을 것’ 87% 이상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도구에 대한 관심과 사용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AI 학습도구란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 성향, 진도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학습자료를 제공하거나,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효율적인 학습을 도와주는 교육 지원 도구를 말한다.

일반 국민들은 AI 학습도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대체점에 있는 기존 사교육·학원강사와 비교할 때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미래 사교육 시장에서 AI 학습도구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전체의 87%를 차지하며, AI 학습도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61%이다. 이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도 큰 차이가 없다.

전체 응답자의 87%가 ‘AI 학습도구, 사교육 시장에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 인식

(단위: %)

*AI 학습도구는 앞으로 사교육 시장에서의 영향이…*

- 매우 있을 것이다
-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 없을 것이다
- 전혀 없을 것이다

25

62

9

4

질문: 사교육 시장에서의 AI 학습도구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335명

조사기간: 2025. 4. 21.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전체 응답자의 61%가 AI 학습도구에 관심 갖고 있어

(단위: %)

- 매우 관심이 있다

- 대체로 관심이 있다

- 별로 관심이 없다

- 전혀 관심이 없다

9

52

32

7

질문: AI 학습 도구에 대해서 평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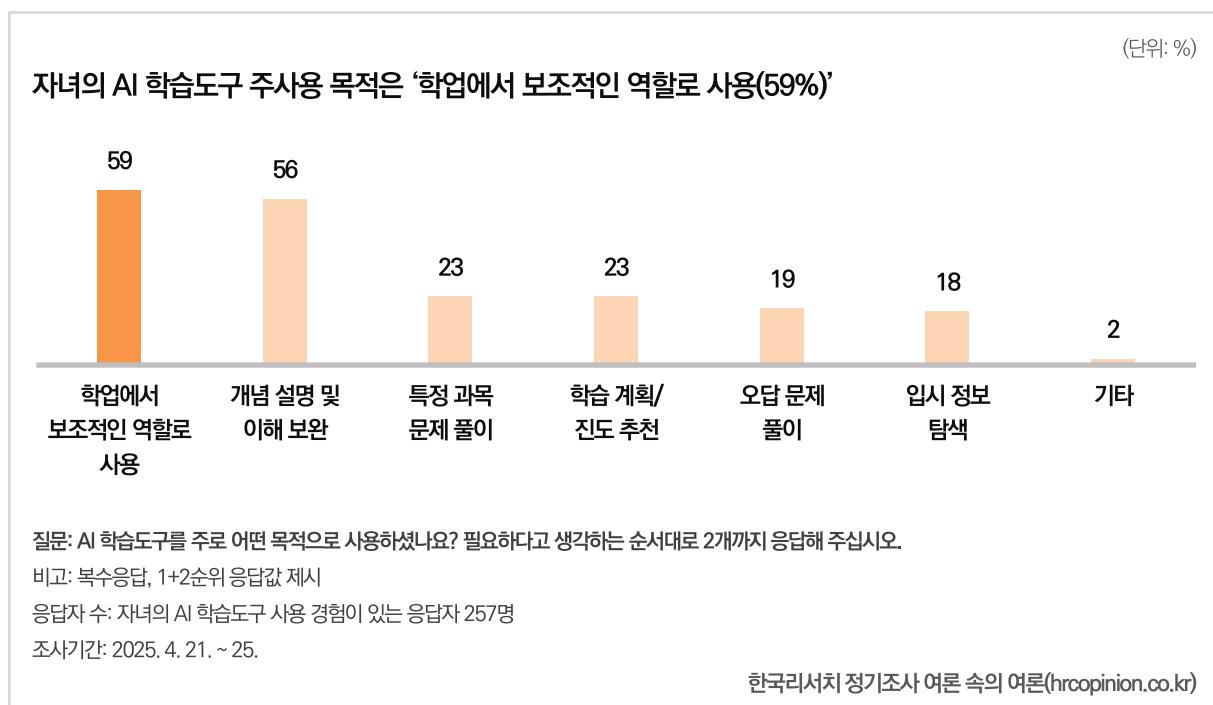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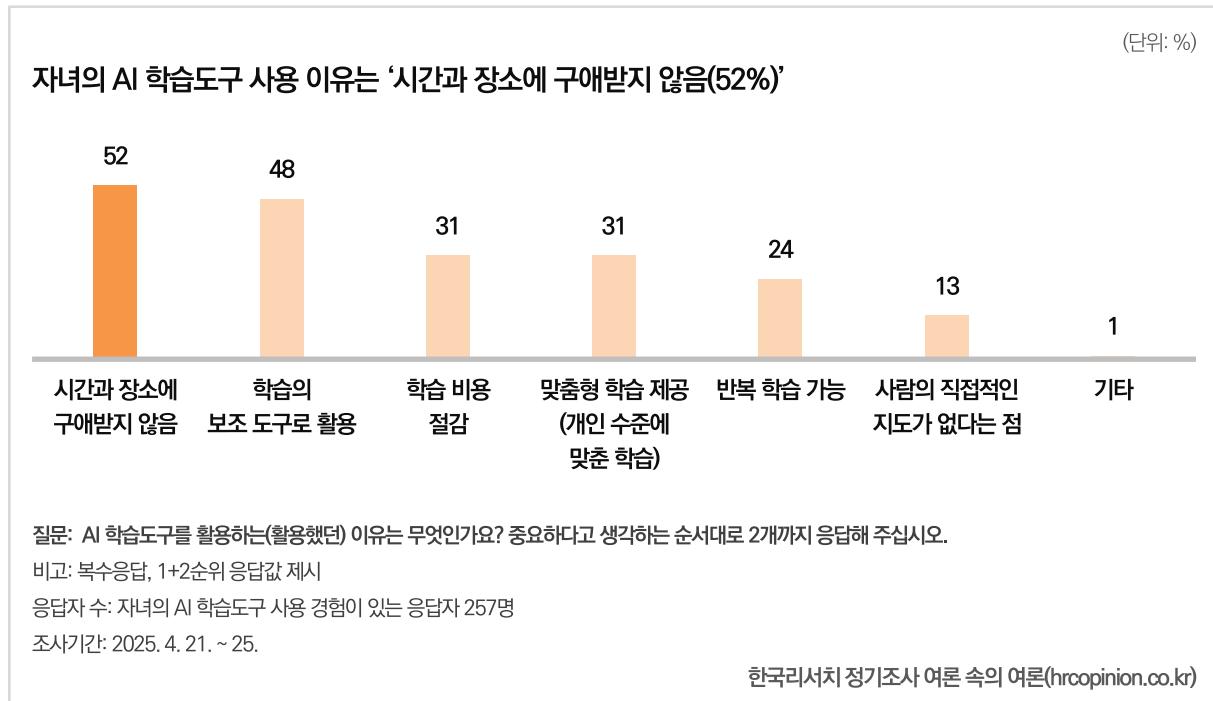
응답자 수: 1,335명

조사기간: 2025. 4. 21.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AI 학습도구 사용 이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 52% 대체적으로 AI 학습도구 효과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아

AI 학습도구 사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 257명에게 AI 학습도구 사용 이유를 물었다. 52%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답해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며, '학습의 보조 도구로 활용'이 48%로 뒤를 잇는다. 주 사용 목적으로는 '학업에서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59%)', '개념 설명 및 이해 보안(56%)'의 응답이 가장 높다.



AI 학습도구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AI 학습도구 사용자와 비사용자 모두에게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핵심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학령기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향후 AI 학습도구와 기존 사교육 시장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을 것이다(학령기 자녀 있음: 79%, 자녀 없음: 74%)',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다(학령기 자녀 있음: 78%, 자녀 없음: 75%)',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학령기 자녀 있음: 69%, 자녀 없음: 68%)'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학습도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학령기 자녀를 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불편할 것(59%)', '기술적 오류, 잘못된 정보 제공 등으로 불편할 것(57%)'이라고 염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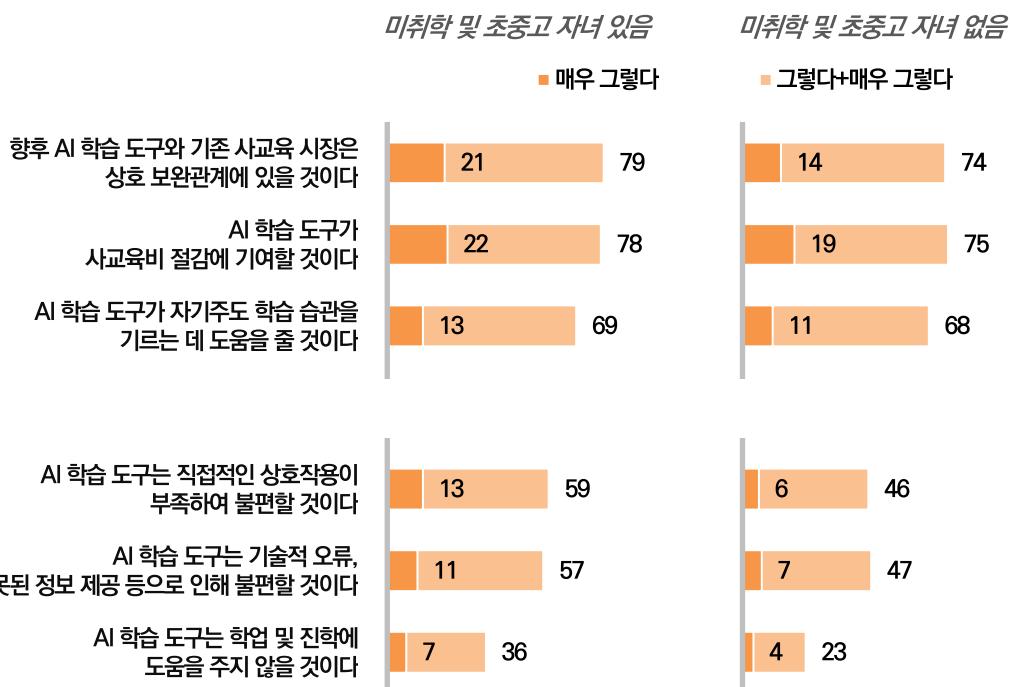
### AI 학습도구의 효과성 평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단위: %)

'AI 학습도구와 기존 사교육 시장은 상호 보완관계' 79%,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불편' 59%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것' 75%, '기술적 오류, 잘못된 정보 제공 등으로 불편할 것' 47%



질문: AI 학습 도구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다음 각각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응답자 수: 미취학 및 초중고 자녀가 있는 사람 560명, 없는 사람 775명

조사기간: 2025. 4. 21.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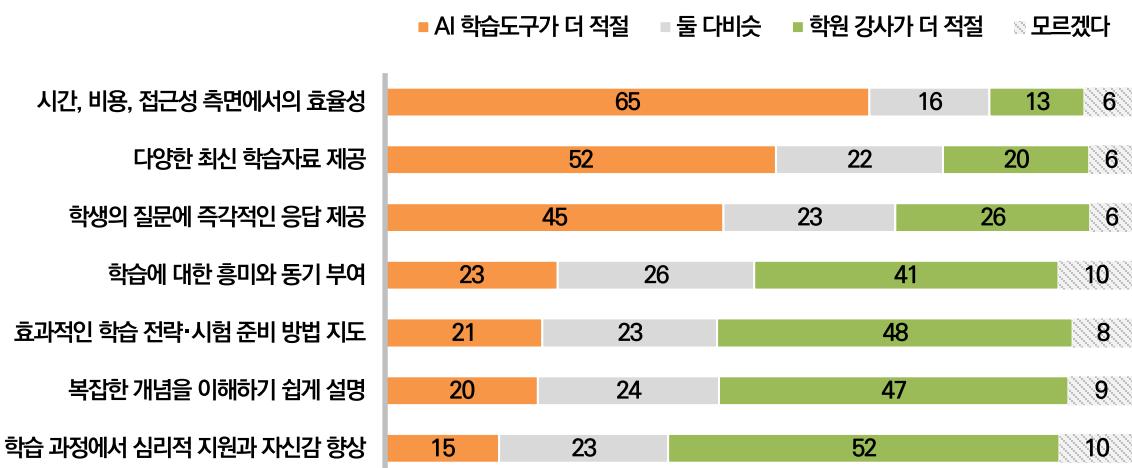
## 4. AI 학습도구와 학원강사 비교

### 최신 학습자료 제공, 시간·비용·접근성 효율성 등에서는 AI 학습도구 심리적인 지원, 시험 준비 방법 지도 등에 대해서는 학원강사

전체 응답자에게 다양한 특성을 제시하고, AI 학습도구와 학원강사를 비교해 보았다. 응답자들은 AI 학습도구와 학원강사는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AI 학습도구에 대해서는 ‘시간·비용·접근성 측면의 효율성(65%)’, ‘최신 학습자료 제공(52%)’, ‘질문에 대한 즉각 응답 제공(45%)’ 등에서 더 적절하다는 평가이다. 반면 학원강사는 ‘학습 과정에서의 심리적 지원 및 자신감 향상(52%)’, ‘효과적인 학습 전략·시험 준비 지도(48%)’,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47%)’,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 부여(41%)’와 같은 정서적·전략적 지원 분야에서 더 적합하다는 평가이다. AI 학습도구는 효율성과 접근성 면에서, 학원강사는 동기 부여와 학습 지도에 강점이 있다고 본다.

**최신 학습자료 제공, 시간·비용·접근성·효율성 등의 실리적인 부분에서는 AI 학습도구가 적절, 심리적인 지원,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 등의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강사가 적절하다는 인식**

(단위: %)



질문: 어떤 경우에 AI 학습도구 또는 학원 강사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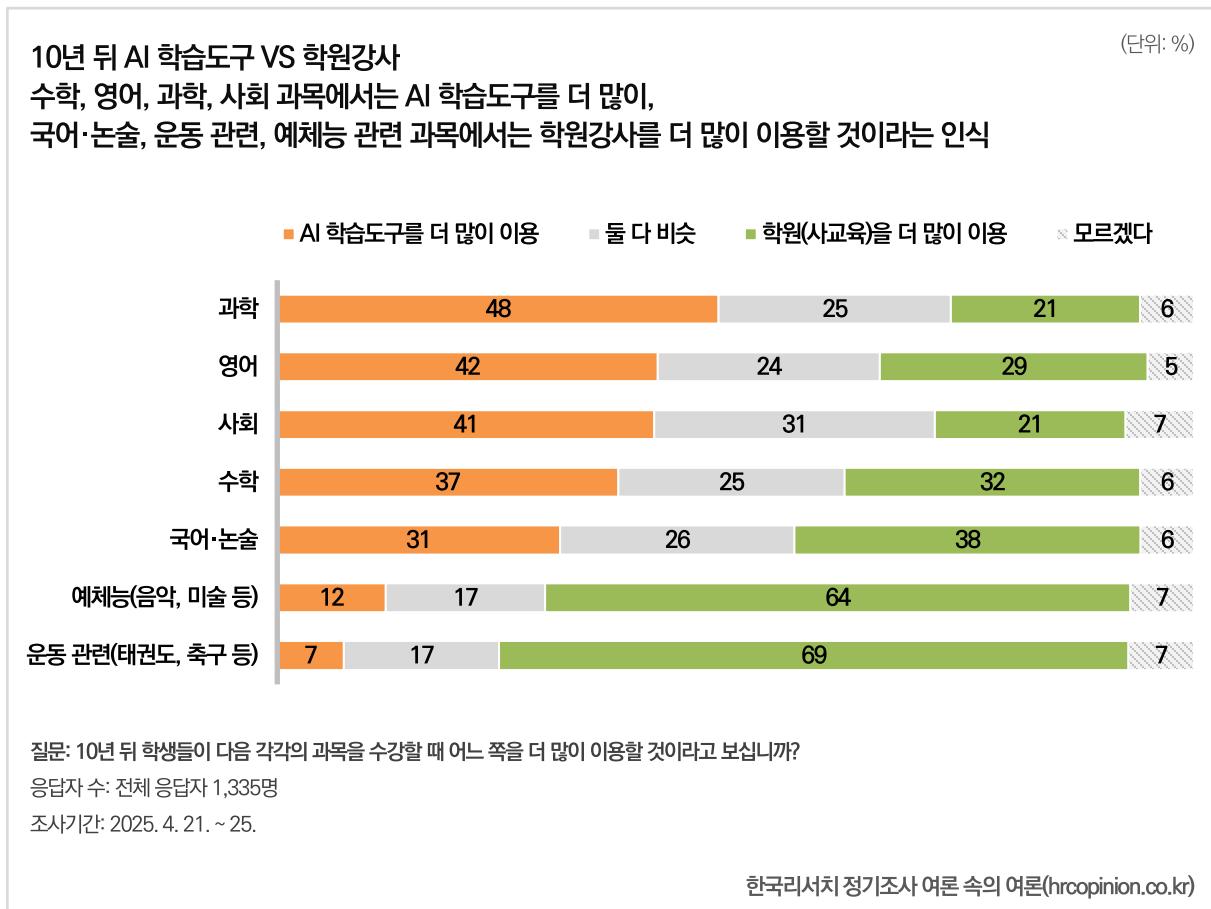
응답자 수: 전체 응답자 1,335명

조사기간: 2025. 4. 21. ~ 25.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hrcopinion.co.kr)

## 10년 뒤... 과학, 영어, 사회 과목에서는 AI 학습도구 이용이, 운동, 예체능은 여전히 학원강사 수업 들을 것이라는 의견

10년 뒤 학생들이 특정 과목을 수강할 때 학원강사와 AI 학습도구 중 어느 쪽을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태권도, 축구 등 운동 관련(69%)’, ‘음악, 미술 등 예체능(64%)’ 과목에서는 학원강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면, ‘과학(48%)’, ‘영어(42%)’, ‘사회(41%)’ 과목에 대해서는 AI 학습도구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다. 실제 교육 선택 주체인 학생이나 학부모가 아닌 일반 국민의 예상이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정보 습득과 반복 학습이 중요한 과목에서는 AI 학습도구가, 실기와 체험이 중요한 과목에서는 인간 강사가 더 적합할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I 학습도구는 사교육 일부를 보완·대체해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하지만 상호작용 부족과 기술 오류 우려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AI 도구의 접근성 확대와 더불어, 학생의 정서 지원·학습 전략 마련 등의 영역에서는 AI 도구와 인간 강사가 협력하는 균형 잡힌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b>모집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응답자)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li> <li>(미취학 및 초중고 자녀 있는 응답자)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li> </ul>
<b>표집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3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li> </ul>
<b>표집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li> </ul>
<b>표본크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응답자) 1,335명</li> <li>(미취학 및 초중고 자녀 있는 응답자) 560명</li> </ul>
<b>표본오차</b>	<p>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응답자) <math>\pm 3.1\%</math></li> <li>(미취학 및 초중고 자녀 있는 응답자) <math>\pm 4.1\%</math></li> </ul>
<b>조사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li> </ul>
<b>가중치 부여방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li> </ul>
<b>응답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응답자) 조사요청 44,976명, 조사참여 2,482명, 조사완료 1,335명 (요청대비 2.2%, 참여대비 53.8%)</li> </ul>
<b>조사일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5년 4월 21일 ~ 4월 25일</li> </ul>
<b>조사기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li> </ul>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

